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 (三)

소쿠라테쓰氏 (二)

鼎言生

『氏의 教育主義』氏는 整然한 意見을 立하여 教育上의 主義 如何를 論定함이 無하나 智德同一論으로써 其主義를 作함이 分明하다 할지니, 氏는 智와 德이 同一함을 信하여 人間된 者 누가 善이 何者됨을 知하여 此를 行치 못하며, 不善이 何者됨을 知하여 此를 避치 못하는 者가 誰인가? 人이 其善을 行치 못하고 其不善을 避치 못함은 아직 其善不善의 如何함을 知치 못하는 者이다. 故로 德은 智의 增進함을 隨하여 漸次로 完全한 美域에 達하는 것이로다. 若智識이 發達치 못한즉 事理에 暗昧할 뿐 不啻라. 싸라서 道德이 또한 善美치 못하는 것이로다.

大概 人은 故意로써 惡行을 務하는 者 無하나니, 卽 人間 行爲가 道德의 됨은 明確한 智識의 力을 因함시오, 其行爲가 此와 反하여 不道德的이 됨은 智識의 發達이 不充分함에 因한 것이다. 故로 人間으로써 智識의 發達에 務함은 人間의 最大 必要한 本務시오, 此를 發達 生長케 함에는 教育의 力에 依賴치 아니치 못할 것이로다. 此와 如히 教育의 力에 依하여 智識을 研磨치 아니한즉 人된 本分을 知치 못하며, 此 本分을 知치 못한즉 人生의 幸福을 盡키 不能한 것이다. 人間된 者 先天的으로부터 各々 生來의 天稟에 多少의 差가 不無하나, 人된 者는 誰某를 不問하고 教育을 受하며 此에 依하여 其 智德을 發達하기에 不能한 者 無한 것이다. 要컨대 智識은 道德의 根本시오 不道德은 智識이 乏한 結果이라 할지로다. 此에 依하여 此를 見한즉 教育者는 반다시 被教育者 天稟의 智識을 誘出하고 此를 發達 進歩케 하여 先天的으로 精神界에 誠心이 有함을 自覺치 아니치 못할 것이로다. 蓋誠心이 意志가 되야 表面에 現한 時는 卽 此가 善良한 行爲시오, 此 善良한 行爲가 卽 道德的 行爲이라 換言하면 誠心은 畢竟 道德的의 意志이니, 卽 德이 是이로다.

故로 教育者는 반다시 被教育者로써 其智識을 明히 하며 此에 依하여 誠

心을 知게 함으로써, 道德的 行爲에 至하여서 德에 達케 할 것이라. 此로부터 人生 最高의 幸福을 得게 할지니, 其最高 幸福은 卽 德에 達함에 有하다 하나라.

『氏의 教育法』 氏는 開發的 教育家이라. 人々을 敎導함에 當하여야는 一定한 場所를 設치 아니하며 公然한 敎授室을 開함이 無하며, 卞라서 其授業料를 受치 아니하고, 或은 公園에 或은 原野에 或은 河邊에 或 寺院에 或은 製作 工場에 或은 街頭에 立하여 人의 誰某를 不問하고 場所의 如何를 不擇하고 何時何處에 在한든지 人을 見한즉, 반다시 問을 發하여 敎訓을 하나니, 其方法은 順序가 正히 함으로써 比뵈어야 直히 道를 傳함이 아니오, 日常의 雜談으로부터 語를 起하여 自然히 人間 義務上에 避치 못하는 事 有함을 說明하다가 드디어 道德의 必要에 歸함을 常例로 하였도다.

氏는 論理의 長이 有함으로써 其敎授方法은 반다시 歸納法을 用함이 常多하였도다. 恰히 孔子가 『人의 器를 知하여 後에 敎育한다.』함과 如히 氏는 人々の 性質을 辨知하여 先히 其敎할 바 事件을 被敎育者의 心志에 固着케 한 後에서 徐々히 此를 敎訓하였도다. 故로 氏의 敎授法에 二種이 有하니 一은 人間 本來의 智識은 正確한 者이 아니라. 故로 此를 進步케 함으로써 正確한 智識을 得할 事를 先히 被敎育者으로써 注意케 하며, 二는 人의 心中에는 可히 動치 아니하는 心이 有한즉 敎育者는 此誠心을 基礎로 하고 種々の 考案을 惹起하여서, 其心力의 暢達을 謨할 者이라. 故로 先히 疑問을 發하여 此를 無限히 熟考後에 其應答에 對하여 瑕疵를 示摘하고, 或은 其誤謬를 矯正하며 簡單한 道理로써 深奧한 道理에 進하여 自然에 正確한 智識을 修得케 함을 計하였도다. 此와 如히 疑問敎授로써 自己의 心力을 用하여 事物의 眞理를 步一步로 推究 自覺케 하여 遂히 此를 發見 悟解의 彼岸에 敎導하여서 智識의 完全 發達과 誠心의 成長 忠實을 保하나라.

此에 依하여 氏는 『人이 余를 學者라 하며 敎育家라 稱하나, 余는 學問의 力이 無하고 智識이 乏함으로써 學識을 有한 者이 아니라. 다만 人이 先天的으로 賦有한 天稟의 智識 誠心을 開發暢達케 하는 者에 不過한 者이라. 故로 余의 二種의 敎授法은 余의 職을 成功케 하는 者로 信하노라.』云하나라. 要컨대 彼等은 彼等 自身의 能力에 因하여 其心을 發達케 함이 氏의 主要한 敎授法이라. 此로써 氏는 實히 開發 敎育家의 鼻祖라 稱하였도다. 如斯히 氏의 敎育法은 系統的이 아니라 할지나, 其敎育法의 衷心은 其知的 其思辨의 存在치 아니하고 個人的과 人格的 方面에 存在하며, 氏는 青年의 敎導者로 自任하여 其智德의 開發과 修養에 全心を 傾하여 實踐的 進修에 務하나라. 一言으로써 蔽한즉 氏는 卓越한 聰明과 德行에 依하여 遂行할 畧만 아니며,

又此聰明과 德行은 單純한 經驗的 概括 及 實踐的 體得 뿐 아니라. 其根底에 在하여는 一의 哲學的 原理에 基因함을 務하였도다.